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 유 정* · 석 주 영** · 박 인 전***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학대받은 경험이 청소년의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 대상은 일반청소년 236명, 비행청소년 239명으로 총 475명이었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Program과 LISREL 8.30 Program을 사용하여 t-test, 경로분석 등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자기통제성도 공격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다시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부모로부터 학대경험, 자기통제성, 공격성

* (재)한국지역발전연구재단 부설 아동복지상담연구소 연구원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강사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I. 서 론

아동기 학대 경험은 성인기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낮은 학업성취도, 수면장애, 약물중독, 자살충동, 공격적인 대인관계 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킬 위험요인(Lopez & Heffer, 1998)이 되는 등 아동기의 학대경험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성인기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Cook, 1995)를 보면, 학대 받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 분노, 공격성, 우울, 비행, 불안,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등의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비행청소년이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더 높으며, 과거의 학대경험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사실은 학대 경험이 아동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학대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학대가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들(김현숙, 1988; Cook, 1995; Lopez & Heffer, 1998)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그들의 발달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흔히 전 생애 발달단계 중 가장 많은 혼란과 불안정을 경험하는 시기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변화도 겪게 됨으로써 다른 시기에 비해 비행이나 사회 심리적 부적응 상태로 빠져들기 쉬운 시기라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적응정도나 부적응양상이 결정되기도 하는데(윤진, 1993), 특히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을 가족 외부로 분출할 가능성은 어린 영·유아나 아동에 비해 훨씬 높으며, 부모의 폭력에 대한 적극적 반응으로 가출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배희분, 1999).

한편,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공격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격성향은 초기 아동기에 비롯되어(Hay & Ross, 1982; Loeber, 1982) 한번 습득되면 바꾸기가 어렵다(Patterson, 1979). 이는 공격성의 초기 발달이 아동의 생활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아동은 최초의 밀접한 대인관계라 할 수 있는 부모를 통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직면하게 되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기 때문(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인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과다행동을 보이고, 방임된 아동 역시 공격적·파괴적이며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Brener, 1984), 학대받은 아동이 더 높은 비율의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위협을 나타낸다(Lewis, Siegel, & Lewis, 1984)고 밝힌 연구들을 보더라도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과 아동의 공격성은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 대부분이 자신이 어렸을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Spinetta & Rigler, 1972)과 아동의 공격성은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것과 부모의 폭력을 관찰하는 것 모두 영향을 받는다(노치영, 1988)는 주장,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공격성에 대한 정서적 무감각이나 습관화를 야기시켜 공격성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갖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보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Walker, 1979)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공격적 행동은 인간이 사회화 과정에서 자기억제 및 자기통제 그리고 금지를 형성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억제와 공격행동은 분리될 수 없는 심리적 작용으로, 공격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며, 성취동기가 결핍되어 있고 분개를 잘하며, 적대적이고 파괴적·충동적이며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데, 손상된 자아개념, 정서적 거부, 자

기표현의 욕구결핍 등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비행성향과 관련이 있는데 비행청소년도 자신에 대한 만족 및 수용정도가 낮아 자신이 열등하고 쓸모없으며 사랑받을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 Loeber와 Dishion(1983)은 공격성이 청소년비행과 같은 반사회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청소년 초기의 공격성은 그 후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Farrington, 1978). 그리고 공격성은 다양한 가족적, 사회적 환경의 부적응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공격성이 반사회적 행동 및 범죄행동과 명백한 관련이 있음(Olweus, 1980)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날 가족구성원의 해체로 인한 제반 문제와 입시위주의 교육체제에 따른 인성교육의 부재 등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약화를 가져옴으로써 비행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적절한 역할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들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수단으로 타인의 행동을 왜곡 해석하여 공격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개인의 성공적인 성취나 바람직한 사회 정서적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기통제능력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낮은 자기통제성의 여러 원인 중 하나로 부모의 훈육이나 훈련이 부족한 결과를 들 수 있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인생초기에 부모의 적절한 훈육 부재로 가정에서의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기통제성이 발달될 수 없으며 그리하여 자기통제성이 낮은 개인은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자신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손해를 고려하지 못하고 비행을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청소년이 당장 눈앞의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분노와 좌절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의 자기통제력 여부는 청소년이 비행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Kaplan(1975)은 손상된 자아개념이 청소년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낮은 자기통제성은

청소년비행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Gottfredson 등(1990)은 자기통제수준이 낮은 사람은 즉각적이고 간단하며 쉬운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으며 위험하고 흥분되는 행위를 선호하고, 지식습득을 위한 기술이 부족하며 장기적인 이익과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Sternberg 등(1983)은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행동문제를 내면성과 외현성의 문제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외현성 행동장애인 공격성과 내면성 행동장애인 우울, 불안, 위축, 자아존중감, 자기통제성 등을 모두 나타내었다고 한다. 그리고 생애초기에 나타난 충동성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품행장애가 낮은 자기통제성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종단적인 연구를 실시한 Polakowski(1994)는 낮은 자기통제력은 인생초기의 공격성이나 싸움과 같은 행동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되며 적어도 3-4년간은 안정성을 띄고, 후에 범죄판결을 받는 것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낮은 자기통제성 및 높은 공격성과 관련성이 적지 않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학대받은 경험이 청소년의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부모들로 하여금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올바른 양육방식에 지침이 되도록 하여 청소년비행 등 미래의 사회문제로 발전될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과 청소년의 자기통제성 및 공격성이 청소년 집단유형(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2>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는 어떠하며, 이는 청소년 집단 유형(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일반청소년 236명과 비행청소년 239명으로 총 475명이다. 즉, 일반청소년의 경우 D시와 K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각각 2학급씩 236명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고,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D시와 K지역에 소재한 ○○소년원에 수감중인 청소년과, S시와 K지역에 소재한 ○○소년원에 수감중인 남자 청소년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일반청소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6세(36.4%)가 15세(33.5%)나 17세(30.1%)보다 약간 많았으며,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16세와 17세가 각각 35.6%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15세가 28.9%로 약간 적었다.

2. 측정 도구

1) 부모에 의한 학대

자신에 대한 행동 및 태도를 부모 자신이 평가하는 것보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더 중요하며 어떤 환경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서

지각하는 것이 객관적인 측정과 상당히 일치하고 정확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전귀연, 1993)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유형 및 정도를 청소년이 지각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에 의한 학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3가지 유형으로 학대를 분류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신체적 학대 경험은 Straus(1979, 권자영, 1991, 재인용)가 제작한 CTS(Conflict Tactics Scale) 중 폭력 척도를 수정·보완한 권자영(1991)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학대는 신영화(1985)가 제작한 정서적 학대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임은 NCCAN(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 Neglect, 1986)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제작한 최윤라(1988)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영역은 신체적 방임과 교육적 방임이며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대경험에 대해서는 아버지 학대와 어머니 학대를 분리하였고 각각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일반청소년인 경우 .75 ~ .93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청소년인 경우 .77 ~ .92로 나타났다.

2) 자기통제성

자기통제성 척도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낮은 자기통제성의 개념 및 내용에 근거를 두고 Gramsmick 등(1993)이 제작한 것으로, 이는 6개 구성요소, 즉 충동성, 단순과제선호, 위험추구성, 육체활동선호, 자기중심성, 화내는 기질이며 각각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6가지 요소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일반청소년인 경우 .62 ~ .78로 나타났으며, 비행청소년의 경우 .62 ~ .73으로 나타났다.

3) 공격성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정민(1998)이 Buss와 Durkee(1957)의 Hostility Scale을 노안녕(1983)이 변안한 척도를 비교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공격성 척도는 총 48문항으로 적대감, 흥분성, 부정성, 의심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하위영역의 세부적인 내용구성은 적대감 16문항, 흥분성 15문항, 부정성 10문항, 의심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일반청소년은 .61 ~ .85로 나타났고, 비행청소년은 .59 ~ .89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2002년 7월 중순에 D시에 소재한 중학교 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예비조사 설문지 문항 중에서 내용 전달이 모호하거나 문화적 차이 등을 나타내는 문항을 일부 수정·보완한 후 실시하였다. 일반청소년은 2002년 12월에 D시 및 K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각각 2학급씩 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22부를 제외한 총 23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2002년 12월에 D시와 K지역에 소재한 ○○소년원에 수감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150부를 배부하였고, 2003년 2월 S시와 K지역에 소재한 ○○소년원에 수감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부를 배부하여 이 중 연령이 맞지 않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11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9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Program과 LISREL 8.30 Program을 사용하여 t-test, 경로분석 등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III. 결 과

1.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과 자기통제성 및 공격성의 청소년 집단 유형에 따른 차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과 자기통제성 및 공격성이 청소년의 집단 유형(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청소년 집단 유형에 따른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과 자기통제성, 공격성의 차이

변인	하위영역	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	t값
		M(SD)	M(SD)	
부학대	신체적 학대	1.27(.33)	1.59(.49)	-8.370***
	정서적 학대	1.13(.26)	1.33(.41)	-6.584***
	방임	1.16(.27)	1.34(.41)	-5.562***
	학대 전체	1.19(.24)	1.42(.37)	-8.247***
모학대	신체적 학대	1.24(.28)	1.26(.31)	-.749
	정서적 학대	1.13(.24)	1.21(.30)	-3.121**
	모방임	1.14(.21)	1.25(.34)	-4.156***
	학대 전체	1.17(.20)	1.25(.27)	-3.373**
자기통제성	충동성	2.30(.46)	4.02(.22)	-51.931***
	단순과제선호	2.23(.44)	3.13(.58)	-18.971***
	위험추구성	2.82(.74)	2.75(.64)	1.227
	육체활동선호	3.19(.75)	3.15(.70)	.579
	자기중심성	2.32(.55)	4.00(.15)	-45.440***
	화내는 기질	2.27(.50)	4.01(.20)	-50.044***
	자기통제성 전체	2.52(.33)	3.51(.26)	-35.984***
공격성	적대감	2.53(.26)	3.46(.26)	-38.906***
	흥분성	3.05(.50)	2.95(.54)	2.159*
	부정성	3.18(.45)	3.06(.50)	2.839**
	의심	2.31(.33)	2.54(.49)	-5.838***
	공격성 전체	2.77(.29)	3.00(.33)	-8.211***

*p< .05 **p< .01 ***p< .001

먼저, 청소년 집단 유형에 따른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은 부 신체적 학대($p < .001$), 부 정서적 학대($p < .001$), 부 방임($p < .001$), 부 학대 전체($p < .001$), 모 정서적 학대($p < .01$), 모 방임($p < .001$), 모 학대 전체($p <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비행청소년이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 경험과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받은 경험이 더 많다고 지각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전반적으로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청소년에 비해 비행청소년이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과 방임받은 경험이 더 많다고 지각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전반적으로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자기통제성의 경우, 충동성($p < .001$), 단순과제선호($p < .001$), 자기중심성($p < .001$), 화내는 기질($p < .001$), 자기통제성 전체($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욕구를 잘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충족하려 하는 경향을 보이며,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고, 타인의 고통과 이해에 무관심하고 화를 쉽게 내며 전반적인 자기통제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공격성의 경우, 적대감($p < .001$), 흥분성($p < .05$), 부정성($p < .01$), 의심($p < .001$), 공격성 전체($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타인에게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의심이 많은데 반해,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협동하기를 거절하거나 반항하는 것을 의미하는 부정성이 약간 더 높으며, 미세한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과 자기통제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

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과 자기통제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경로를 거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운 가설적 모형이 주어진 경험자료와 잘 맞는지를 분석하였다. 적합도 지수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Chi-square(χ^2), 합치도 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된 합치도 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표준부합치(Normed Fit Index: NFI), 원소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SR)를 이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각각의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각 외생변수가 내생변수로 가는 고정지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게 나타난 경로를 0으로 고정시켜 보다 간명한 <모형 1>을 취하였고, <모형 1>의 분석 결과, 고정지수 값이 작게 나타난 경로를 0으로 고정시켜 보다 간명한 <모형 2>를 최종모형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일반청소년의 Chi-square는 386.74($p=0.0$), $df=97$ 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χ^2 값은 표본수에 민감하여 자료가 클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카이자승치와 자유도 간의 비율을 이용한 표준카이자승치가 더 선호되어지고 있다. 표준 카이자승치는 10보다 작을수록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본 연구에서 일반청소년의 χ^2/df 는 3.99로 나타나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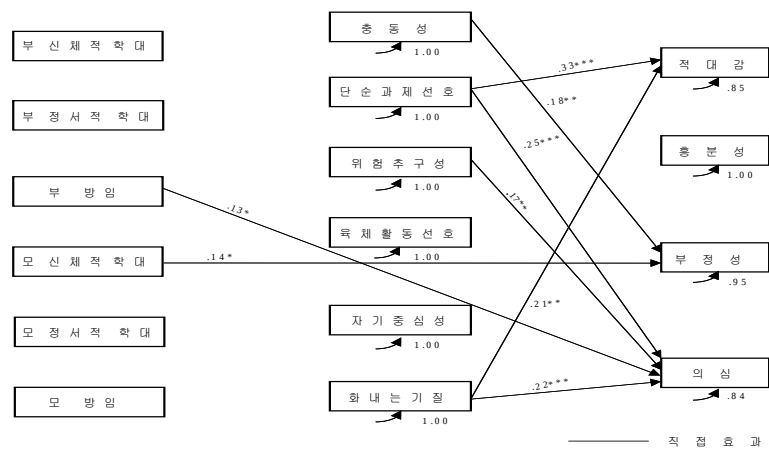
<표 2> 가설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적합도		χ^2	df	GFI	AGFI	NFI	RMSR
일반	가설모형	341.05	21	.80	-.29	.67	.12
	모형1	373.00	84	.79	.67	.63	.13
	모형2	386.74	97	.79	.70	.62	.13
비행	가설모형	178.72	21	.89	.30	.82	.09
	모형1	205.16	74	.88	.78	.79	.10
	모형2	222.81	85	.87	.80	.77	.10

2) 가설적 모형의 인과관계 경로 추정

변인들간의 영향은 t값으로 가설된 경로들의 통계적인 유의성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는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표준화된 계수를 사용하였다. 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의 경로 모형을 [그림 1], [그림 2]에 제시하였고,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가설적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표 3>,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일반청소년의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일반청소년의 연구 모형 경로도

<표 3> 일반청소년 연구 모형의 직·간접효과, 총효과

()는 t값

영향을 주는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영향을 받는 변인	
부모 학대	모 신체적 학대	.14(2.01*)		.14(2.01*)	부정성	공격성
	부 방임	.13(2.06*)		.13(2.06*)	의심	
자기 통제성	단순과제선호 화내는 기질	.33(4.98***)		.33(4.98***)	적대감	공격성
		.21(3.11**)		.21(3.11**)		
	충동성	.18(2.53**)		.18(2.53**)	부정성	
	단순과제선호 위험추구성 화내는 기질	.25(3.85***)		.25(3.85***)	의심	
		.17(2.57**)		.17(2.57**)		
		.22(3.32***)		.22(3.32***)		

*p< .05 **p< .01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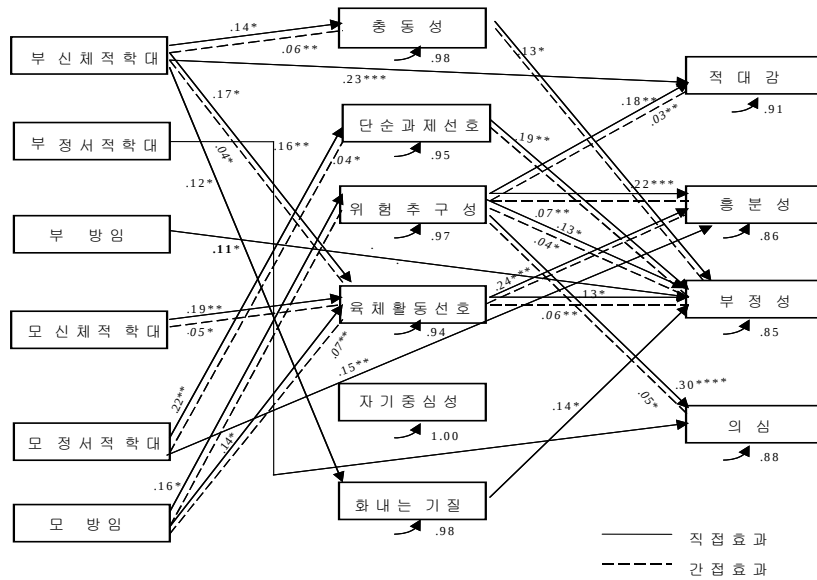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청소년의 경우 부 방임(DE= .13, t=2.06)이 일반청소년의 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모 신체적 학대(DE= .14, t=2.01)는 일반청소년의 부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생변인인 일반청소년의 자기통제성 중 단순과제선호(DE= .33, t=4.98), 화내는 기질(DE= .21, t=3.11)이 적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충동성(DE= .18, t=2.53)은 부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단순과제선호(DE= .25, t=3.85), 위험추구성(DE= .17, t=2.57), 화내는 기질(DE= .22, t=3.32)은 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내생변인의 설명되지 않은 변량은 PSI(ψ)지수로 나타내며, 이 지수가 클수록 그 설명하는 중요한 다른 설명 변인이 누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반대로 내생변수의 설명력으로 해석되는데 [그림 1]에서 살펴보면 적대감의 15%(ψ = .85)가 2개의 내생변인 즉, 단순과제선호와 화내는 기질에 의해 설명되며 부정성의 5%(ψ = .95)가 1개의 외생변인인 모 신체적 학대와 1개의 내생변인인 충동성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의심의 16%(ψ = .84)가 1개의 외생변인과 3개의 내생변인 즉, 부 방임과 단순과제선호, 위험추구성, 화내는 기질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비행청소년의 경로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고,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행청소년의 경우 먼저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부 신체적 학대(DE= .23, t=3.30)가 비행청소년의 적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모 정서적 학대(DE= .15, t=2.25)는 비행청소년의 흥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 방임(E= .11, t=1.73)은 부정성에 부정적 학대(DE= .16, t=2.39)는 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림 2] 비행청소년의 연구 모형 경로도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이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부 신체적 학대($DE = .14$, $t = 2.01$)가 비행청소년의 충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모 정서적 학대($DE = .22$, $t = 3.09$)는 비행청소년의 단순과제선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모 방임($DE = .16$, $t = 2.24$)은 위험추구성에, 부 신체적 학대($DE = .17$, $t = 2.22$)와 모 신체적 학대($DE = .19$, $t = 2.47$) 그리고 모 방임($DE = .14$, $t = 1.86$)은 육체활동선호에, 부 신체적 학대($DE = .12$, $t = 1.72$)는 화내는 기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생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경우, 공격성 중 적대감은 위험추구성($DE = .18$, $t = 2.56$)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흥분성은 위험추구성($DE = .22$, $t = 3.27$)과 육체활동선호($DE = .24$, $t = 3.65$)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성은 충동성($DE = .13$, $t = 2.01$), 단순과제선호($DE = .19$, $t = 3.00$), 위험추구성($DE =$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13, $t=1.96$), 육체활동선호(DE= .13, $t=1.96$), 화내는 기질(DE= .14, $t=2.11$)
이, 그리고 의심은 위험추구성(DE= .30, $t=4.44$)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표 4> 비행청소년 연구 모형의 직·접효과, 총효과

()는 t 값

영향을 주는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영향을 받는 변인	
부모 학대	부 신체적 학대 모 방임	.23(3.30 ^{***})	.03(1.68 [*])	.23(3.30 ^{***}) .03(1.68 [*])	적대감	공격성
	부 신체적 학대 모 신체적 학대 모 정서적 학대 모 방임	.15(2.25 ^{**})	.04(1.90 [*]) .05(2.04 [*]) .07(2.48 ^{**})	.04(1.90 [*]) .05(2.04 [*]) .15(2.25 ^{**}) .07(2.48 ^{**})	흥분성	
	부 신체적 학대 부 방임 모 정서적 학대 모 방임	.11(1.73 [*])	.06(2.45 ^{**}) .04(2.15 [*]) .04(2.00 [*])	.06(2.45 ^{**}) .11(1.73 [*]) .04(2.15 [*]) .04(2.00 [*])	부정성	
	부 정서적 학대 모 방임	.16(2.39 ^{**})	.05(2.00 [*])	.16(2.39 ^{**}) .05(2.00 [*])	의심	
부모 학대	부 신체적 학대	.14(2.01 [*])		.14(2.01 [*])	충동성	자기 통제성
	모 정서적 학대	.22(3.09 ^{**})		.22(3.09 ^{**})	단순과제선호	
	모 방임	.16(2.24 [*])		.16(2.24 [*])	위험추구성	
	부 신체적 학대 모 신체적 학대 모 방임	.17(2.22 ^{**}) .19(2.47 ^{**}) .14(1.86 [*])		.17(2.22 ^{**}) .19(2.47 ^{**}) .14(1.86 [*])	육체활동선호	
	부 신체적 학대	.12(1.72 [*])		.12(1.72 [*])	화내는 기질	
자기 통제성	위험추구성	.18(2.56 ^{**})		.18(2.56 ^{**})	적대감	공격성
	위험추구성 육체활동선호	.22(3.27 ^{**}) .24(3.65 ^{***})		.22(3.27 ^{**}) .24(3.65 ^{***})	흥분성	
	충동성 단순과제선호 위험추구성 육체활동선호 화내는 기질	.13(2.01 [*]) .19(3.00 [*]) .13(1.96 [*]) .13(1.96 [*]) .14(2.11 [*])		.13(2.01 [*]) .19(3.00 [*]) .13(1.96 [*]) .13(1.96 [*]) .14(2.11 [*])	부정성	
	위험추구성	.30(4.44 ^{***})		.30(4.44 ^{***})	의심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모 방임(IE= .03, $t=1.68$)이 비행청소년의 적대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모 방임은 비행청소년의 위험추구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시 비행청소년의 적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 신체적 학대(IE= .04, $t=1.90$)와 모 신체적 학대(IE= .05, $t=2.04$) 그리고 모 방임(IE= .07, $t=2.48$)은 비행청소년의 흥분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부 신체적 학대와 모 신체적 학대, 모 방임은 비행청소년의 육체활동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시 비행청소년의 흥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 신체적 학대(IE= .06, $t=2.45$)와 모 정서적 학대(IE= .04, $t=2.15$), 모 방임(IE= .04, $t=2.00$)이 비행청소년의 부정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부 신체적 학대는 비행청소년의 충동성에, 모 정서적 학대는 비행청소년의 단순과제선호에, 모 방임은 위험추구성에 각각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시 비행청소년의 부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모 방임(IE= .05, $t=2.00$)은 비행청소년의 의심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모 방임은 비행청소년의 위험추구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시 비행청소년의 의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내생변인의 설명력(PSI값)을 살펴보면, 충동성의 2%($\phi = .98$)가 부 신체적 학대에 의해 설명되고, 단순과제선호의 5%($\phi = .95$)가 모 정서적 학대에 의해 설명되며, 위험추구성의 3%($\phi = .97$)가 모 방임에 의해 설명되고, 육체활동선호의 6%($\phi = .94$)가 3개의 외생변인인 부 신체적 학대, 모 신체적 학대, 모 방임에 의해 설명되며, 화내는 기질의 2%($\phi = .98$)가 부 신체적 학대에 의해 각각 설명된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적대감은 9%($\phi = .91$)가 외생변인인 부 신체적 학대와 내생변인인 위험추구성에 의해 설명되고, 흥분성은 14%($\phi = .86$)가 1개의 외생변인인 모 정서적 학대와 2개의 내생변인 즉 위험추구성과 육체활동선호에 의해 설명되며, 부정성은 15%($\phi = .85$)가 1개의 외생변인인 모 방임과 5개의 내생변인 즉 충동성, 단순과제선호, 위험추구성, 육체활동선호, 화내는 기질에 의해 설명된다.

의심은 12%($\phi = .88$)가 외생변인인 부 정서적 학대와 내생변인인 위험추 구성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청소년의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며, 그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과 자기통제성 및 공격성의 청소년 집단 유형에 따른 차이

첫째, 청소년 집단 유형에 따른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 경험과 정서적 학대 경험, 방임 받은 경험이 더 많다고 지각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전반적으로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과 방임 받은 경험이 더 많다고 지각할 뿐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전반적으로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청소년의 아버지가 일반청소년의 아버지보다 경미한 학대에서부터 심각한 학대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더 많이 구타한다는 김은희(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가출아동이나 비행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들보다도 10배 이상이나 정서적 학대를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 허남순

(1993)의 연구 결과 및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정서적 학대를 받는다고 보고한 신영화(1985)의 연구 결과와 부모로부터 언어적 공격을 자주 경험한 아동들이 더 높은 비율의 신체적 공격과 비행을 나타낸다는 Vissing 등(1991)의 주장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집단유형에 따른 자기통제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충동성, 단순과제선호, 자기중심성, 화내는 기질, 자기통제성 전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 보다 충동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연구 결과들(원호택, 1993; Keane et al., 1993)과 일치한다. 단순과제선호에서도 일반청소년보다 비행청소년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비행청소년의 경우 어렵고, 모든 노력을 들여서 이뤄낼 수 있는 과제보다는 쉽고 단순한 과제를 더 선호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민수홍(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중심성에서도 일반청소년보다 비행청소년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비행청소년의 경우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에 덜 민감하고 자신을 앞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 결과 역시 광금주 등(199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내는 기질에서도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쉽게 화를 내고, 화를 참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Wood 등(1993)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에 비해 자기통제력 전체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 비행청소년이 자기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선행연구결과들(민수홍, 1995; Gramsmick et al, 1993; Wood et al., 1993)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셋째, 청소년 집단 유형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더 부정적이며 쉽게 흥분함을 알 수 있는 반면,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의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부정성과 죄의식이,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공격성과 의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강선미(1999)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비행청소년의 성격 특징을 일반적으로 외향적이며 화를 잘 내고 적대적이며 반항적이며 의심이 많고 사회적 기대에 응하려는 관심이 적으며 권위에 대하여는 복종심이 적다고 지적한 연구 결과(김현경, 1997)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 및 자기통제성과 공격성간의 경로 탐색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는 외생변인으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사용되었으며, 내생변인으로 청소년의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이 사용되었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경험적 자료와 부합되었다. 이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 및 청소년의 자기통제성과 공격성간의 가설적 모형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짐을 의미하며 이들 변인과 청소년의 공격성간의 인과관계 경로를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모형의 인과관계 경로를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먼저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면, 일반청소년의 경우 부 방임이 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 신체적 학대는 부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반해, 비행청소년의 경우 부 신체적 학대가 적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정서적 학대가 의심에, 부 방임이 부정성에, 모 정서적 학대가 흥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김광일 외, 1987)와 신체적 학대를 받은 자녀는 공격적, 충동적이고 과잉활동을 보이며, 정서적 학대를 받은 자녀는 분노, 적대감을 가지며 위축을 보인다고 밝힌 Brenner(1984)의 연구 결과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특히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의심의 경우, 일

반청소년은 아버지의 방임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비행청소년은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정성의 경우, 일반청소년은 어머니의 신체적 학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행청소년은 아버지의 방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청소년은 어머니로부터 신체적 학대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부정적인 경향이 더 높은 반면, 비행청소년은 아버지로부터 방임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부정적인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비행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심각한 정도의 거절 경험으로 인해 청소년기에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어려워하고 불신한다는 현지은(1999)의 연구결과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른의 감독이나 관리없이 시간을 보내는 빈도가 많을수록 비행, 폭력행동, 반사회적인 행동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선행연구결과들(김미혜 외, 2001; 나유미 외, 2002)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아동학대가 폭력적 청소년 행동의 예측요인이거나 적절한 설명 요인이 될 수 있다(Kratcosi, 1982)는 주장과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일반청소년은 자기통제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는 반면 비행청소년들은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충동적이고,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단순한 과제를 선호하며 어머니로부터 방임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위험한 것을 좋아하고 아버지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어머니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경험 및 방임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육체활동을 선호하며,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화를 잘 내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학대를 받고 자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

들보다 충동성이 더 높다고 밝힌 박은미(1994)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자기통제성이 낮다고 밝힌 Sternberg 등(1983)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통제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 단순과제선호와 화내는 기질이 적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충동성이 부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순과제선호, 위험추구성, 화내는 기질이 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행청소년의 경우 위험추구성이 적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위험추구성과 육체활동선호가 흥분성에 충동성, 단순과제선호, 위험추구성, 육체활동선호, 화내는 기질이 부정성에 위험추구성이 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낮은 자기통제력은 인생초기의 공격성이나 싸움과 같은 행동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되며 후에 범죄판결을 받는 것과 유의한 수준으로 관련된다고 밝힌 Polakowski(199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자아통제력과 공격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반사회적인 행동이 자신의 욕구불만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공격적인 행동으로 해소하려는 자제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주장(한상철 외, 1997)과 비행청소년은 감정 및 욕구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말로 표현해내지 못하므로 주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로 방출시키게 된다는 현지은(1999)의 연구결과와 일부 맥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점은 위험추구성이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에 차이가 없이 나타나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성인 것으로 보이나 일반청소년인 경우는 위험추구성이 의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행청소년인 경우 위험추구성이 의심 뿐만 아니라 모든 공격성 하위 변인에 영향을 미쳐 위험한 행동을 하기를 좋아

하고 이러한 행동을 자주 하는 성향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적인 성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집단 유형에 따른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외생변인인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내생변인을 거쳐 공격성으로 가는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니로부터 방임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위험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아져 적대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비행과 관련된 이상성격에는 자아통제력 결여, 자주성 결여, 지나친 공격성, 부정적인 자아개념, 불신감, 비사회성 또는 반사회성, 지나친 외향성, 강박적인 과남성성 등이라는 한상철 등(1997)의 주장과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적대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박은미, 1994; Brenner, 1984; Kinard, 198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비행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하고 어머니로부터 방임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정신적인 일보다 육체적인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져 흥분을 잘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더 충동적이고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단순과제를 선호하며 어머니로부터 방임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위험추구성이 높아져 비행청소년은 부정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폭력은 해당 자녀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과 후유증을 가져와서 학업성취도가 낮고 이탈행동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 폭력관련 범죄행위로 구속되는 비율이 높다고 밝힌 Widom(1989)의 연구 결과와, 학대받은 유아는 행동상 산만하고 공격적이며 파괴적, 반항적이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관심을 끌려고 하며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다고 지정한 연구 결과(김정준, 1987)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행청소년은 어머니로부터 방임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위험추구성이

높아져 남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부모로부터의 무관심이나 부정적인 관심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애정에 대한 욕구와 기본 신뢰 및 안정에 대한 욕구가 침해당함으로써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를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또는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은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는 한상철 등(1997)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폭력경험을 가정외부로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부모의 폭력적 행동을 모방하거나 부모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부모 모두의 올바른 양육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분석되고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많았고, 어머니로부터는 신체적 학대를 제외하고는 학대경험이 많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전반적으로 자기통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험추구성과 육체활동선호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자기통제성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공격성에서는 일반청소년보다 비행청소년이 타인에 대해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의심이 많은 반면,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규칙이나 관례에 대해 반항하려는 경향이 더 높고 쉽게 자신의 감정을 폭발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둘째,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과 달리 어머니로부터 방임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위험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아져 적대적인 경향이 높았고,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하고 어머니로부터 방임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정신적인 일보다 육체적인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져 흥분을 잘하였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더 충동적이고 어머니로부터 정서

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단순과제를 선호하며 어머니로부터 방임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위험추구성이 높아져 비행청소년은 부정적인 경향이 많으며, 어머니로부터 방임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위험추구성이 높아져 남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향이 많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과 청소년의 자기통제성 및 공격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미비한 단계에서 이들 변수간의 통합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집단유형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청소년의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학대를 조사하기 위해 자녀의 지각만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실제로 부모와 자녀의 지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부모의 지각이나 주변사람들의 관찰을 통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학대받은 경험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로부터의 학대받은 경험을 통해 그들의 자기통제성 및 공격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다양한 관련변인을 포함시킨 폭넓은 연구가 요망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제한으로써 연구 대상이 특정지역에 국한됨에 따라 결과 전체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이다. 특히 비행청소년의 연령별 피험자를 충분하게 모집하지 못한 것도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되겠다. 또한 국내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남학생을 중심으로 거의 이루어져 왔으며 본 연구에서도 비행집단의 피험자 수에서 남·녀 차가 매우 많아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공식 통계 기록에 의하면, 여학생들의 비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남학생은 주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에 관련되어 있으며, 여학생은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폭력에 관련되어있음을 감안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에서 구체적으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학생이 보이는 비행의 정도나 그 원인 뿐만 아니라 폭력형태에서 보이는 남녀 차이에 대해서도 추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청소년의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정상적이며, 사회의 유능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며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자기통제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상태에 관한 보다 발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선미(1999).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성 역할 정체감과 공격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윤진·문은영(1993). 한국청소년 비행연구의 동향과 심리학적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 권자영(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일·고복자(1987). 한국에서의 아동구타 발생률 조사. 정신건강연구, 제 6 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66-81.
- 김미혜·옥경희·천희영(2001). 초기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학업성취 및 사회적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9(6), 93-108.
- 김은희(200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학대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일반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준(1987).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의 학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1997). 학교관련변인요인이 청소년 폭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1988). 한국 교회 학교의 교육내용에 관한 소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유미·임연진(2002). 청소년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파악 정도와 관리 노력 : 학년에 따른 변화. 아동학회지, 23(4), 89-104.
- 노안녕(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감소에 미치는 주장 훈련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치영(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수홍(1995). 낮은 자기통제력의 원인과 결과. 형사정책연구, 6(1).

박은미(1994).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 특성과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정민(1998). 비행청소년의 나르시시즘, 지배성,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영화(1985).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호택(1993).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청소년범죄연구 11집. 서울 : 법무부.

윤진(1993).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와 문제.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이경희·배희분(1999). 부모의 의한 청소년 자녀폭력 사례연구와 피해자 치료프로그램의 개발-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 입소생을 대상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5-43.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윤라(1988). 학대받은 아동의 공격성과 감정이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상철·조아미·박성희(1997). 청소년 심리학. 서울 : 양서원.

허남순(1993).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23-45

현지은(1999).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심리극 프로그램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renner, A.(1984). *Helping Children cope with stress*, Lexington, Mass : Health and Company.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1990). Assessing internal

-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pp. 273-30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ss, A. H., & Durkee, A.(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343-349.
- Cook, A. B.(1995). *Childhood Maltreatment and Parental Attachment*. UMI Dissertation Services.
- Farrington, D. P.(1978). Family Backgrounds of Aggressive Youth, In L. A. Hersov., & M. Berger,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Oxford Pergamon Press.
- Gottfredson, M.,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msmick, H. G., Tittle, C. R., Robert J. Bursik, Jr., & Arneklev, B. J.(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Hay, D. F., & Ross, H. S.(1982). The social nature of ear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53, 105-113.
- Kaplan, H. B.(1975). Sequel of self-derogation : Predicting from a general theory of deviant behavior. *Youth Society*, 7(2), 171-197.
- Keane, C., Maxim, P. S., & Teevan, J. J.(1993). Drinking and Driving, Self-Control, and Gender; Test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s Crime and Delinquency*, 30(1), 30-46.
- Kinard, E. M.(1982). Experiencing Child Abuse ; Effects on 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1), 82-91.
- Kratcosi(1982). Child abuse and violence against the family. *Child*

Welfare, 61.

- Lewis, C. E., Siegel, J. M., & Lewis, M. A.(1984). Feeling bad
Exploring sources of distress among pre-adolescent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4, 117-122
- Loeber, R.(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53, 1431-1446.
- Loeber, R., & Dishion, T. J.(1983). Early predictore of male delinquenc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4, 68-98.
- Lopez, M., & Heffer, R.(1998). Self-concept and soc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 victim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Child
Abuse and Neglect*, 22, 183-195.
- Olweus, D.(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16(6).
- Patterson, G. R.(1979). Treatment for children with conduct problems a
review of outcome studies : Aggression and behavior change.
Biological and social processes. 83-138.
- Polakowski, M.(1994). Linking self-and social control with deviance:
Illuminating the structure underly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its relation to deviant activ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0(1).
- Spinetta, J. J., & Rigler, D.(1972). The child-abusing parent. A
psycholog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7, 296-304.
- Sternberg, K. J., Lamb, M. E., Greenbaum, C., Cicchetti, D., Dawud, S, Cortes,
R. M., Krispin. O., & Lorey, F.(1983).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44-52.
- Vissing, Y., Straus, M., Gelles, R., & Harrop, J.(1991). Verbal aggression

by parents and psychosocial problems of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5, 223-238.

Walker, L. E.(1979). *The battered woman*. NY : Harper & Row.

Widom, C. S.(1989).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44, 160-165.

Wood, P. B., Pfefferbaum, B., & Arneklev, B. J.(1993). Risk-Taking and Self-Control: Social Psychological Correlations of Delinquency.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16(1).

ABSTRACT

The Effects of Child Abuse on Children from Their Parents on Self-Control and Aggressive Behavior of Adolescents : Differences between Ordinary and Delinquent Adolescents

Jo, You-Jung* · Suk, Ju-Yeung** · Park, In-Jeon**

This study proved the effects of child abuse experiences from their parents and its effect on adolescent's self-control and aggressive behavior by finding the difference between ordinary and delinquent adolescents. Participants were 258 ordinary adolescents and 239 delinquent adolescents. Data were analysed by t-test, and path analysis using SPSSWIN 10.0 Program and LISREL 8.30 Program. Results showed that delinquent adolescents perceived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long with neglected experiences from their father more than normal adolescents. Also, effects of child abuse experiences from their parents on self-control and aggressive behavio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ordinary and delinquent adolescents.

Key Words : child abuse on children from their parents, self-control, aggressive behavior

투고일 : 4월 28일, 심사일 : 6월 7일, 심사완료일 : 6월 22일

* KRDF

** Yeungnam Univ.